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5파전

동양그룹·중동·멕시코 업체등 의향서 접수

성사땐 광주공장에 대규모 신규 투자 기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동양그룹이 뛰어들었다. 동양그룹 외에도 4곳에서 대우일렉 인수 의향을 표시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인수업체가 향후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냉장고·세탁기 등 백색 가전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대우일렉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동양메이저를 비롯한 전략적 투자자 4곳과 재무적 투자자 1곳 등 총 5곳이 서류를 제출했다.

동양메이저 이외에 일렉트로룩스, 중동의 가전회사인 앤텍, 멕시코 가전회사, 사모펀드인 리플우드가 참여했다.

관심을 모았던 유럽의 대표적인 백색가전 기업인 보쉬-지멘스는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앞서 지난달 23일 삼일회계법인, 우리투자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고 인수의향서 접수 및 입찰 적격자 선정 절차 등을 담은 매각 공고를 냈다. 앞서 담보권자·채권은행 관계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우일렉 채권단 협의회'를 통해 대우일렉 매각협상을 진행을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채권단은 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예비 실사(6~8주) 진행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세부 일정을 수립한

다는 방침이다. 실사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일렉은 지난 2007년 영업이익 75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출시된 드럼업 시리즈가 90년대

돌풍을 일으킨 '공기방울 세탁기' 신화를 재현하면서 올 3분기 매출 3141억 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흑자 달성이 기대된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가전 시장에서 살아온 브랜드와 백색가전 분야에 서의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향후 대우일렉 인수업체가 공격적 투자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년 초까지 백색가전 부문을 광주공장으로 이전, 접적화가 이뤄진다는 점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우일렉의 매각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매각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조기 매각에 힘을 쏟고 있는데, 대우일렉이 가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매수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우일렉 지분은 자산관리공사(캠코) 57.42%를 비롯한 외환은행(6.79%), 신한은행(5.75%), 우리은행(5.37%) 등 채권단이 9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단은 지난 2006년 비디오콘-리플우드 컨소시엄을, 지난해 2월에는 모건스탠리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말에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리플우드와의 협상도 결렬됐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가전 시장에서 살아온 브랜드와 백색가전 분야에 서의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향후 대우일렉 인수업체가 공격적 투자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차는 15년만에 무파업

파업없이 임단협에 짐정합의했다.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한 노조원이 올해 노사 임·단협 짐정합의안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15년 만에

/연합뉴스

삼성 '호남인사 소외' 논란

신임 사장·부사장 52명중 호남출신 1명뿐

최근 단행된 삼성그룹 사장·부사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알려져 '호남인사론'이 일고 있다.

22일 조영백(민주·광주 서구 갑) 의원과 삼성그룹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52명의 삼성 계열사 신임 사장 단과 부사장단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원은 이날 삼성 신임사장 28명과 신임 부사장 20명의 인적사항을 연합뉴스 인물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출신이

사건 여파로 호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흘러내려 받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의원은 "인적사항이 전부 파악되지 않는 전무, 상무 인사도 대동소이할 것"이라며 "사실이 이와 다르다면 삼성은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한 관계자는 "삼성은 글로벌 그룹인데 호남 소외론은 말이 안 된다"며 "삼성그룹은 사원들의 출신지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천국제공항 상장 추진

내년 하반기 ... 산은·기업은행 민영화도

인천국제공항이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에 상장이 추진된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 상장되며 한국산업은행, 기은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논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의 상장을 포함해 24개 민

작업에 나서며 내년 7월 매각 공고를 낸 뒤 하반기 내에 상장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655.54 (+11.31)
코스닥지수
512.78 (-5.31)
금리 (국고채 3년)
4.31% (+0.12)
원·달러 환율
1,179.90원 (-3.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내년 光銀인턴 300명 채용

광주은행이 내년에 300명의 인턴 사원을 채용한다.

우리금융그룹은 22일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인턴사원 약 2천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채용 인원 2천500명보다 300명 많다.

계열사별 채용 규모를 보면 우리은행 1천500명, 광주은행 300명, 경

남은행 300명, 우리투자증권 250명 등이며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및 우리파이낸셜, 우리아비바생명 등 나머지 6개 계열사에서 150명 등을 채용한다.

인턴사원은 소속사별로 직무연수, 영업점 체험활동 등 다양한 금융관련 업무를 배우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銀인사 '女風'

첫 1급 여성 지점장 등 대거 승진

광주은행 역사상 최초의 여성 1급 지점장이 탄생하는 등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22일 1~4급에 이르는 연말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직원들이 대거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특히 광주 운남동지점 장영미(50) 지점장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해 광주은행 '첫 여성 1급 지점장'의 주인공이 됐다.

이밖에 3급 부지점장에도 다수

의 여성이 포함됐고, 종전에는 남자가 80%를 차지하던 4급(과장) 책임자에 여성 비중이 50%를 차지했다.

광주은행 업무지원부문부 정기

복본부장은 "이번 인사는 보수적인 은행업계에도 여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며 "여성리더 육성과 남녀 고용 평등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여성 승진 대거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銀, 50억엔 장기차입

광주은행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일본계 은행인 미즈호코퍼레이트 은행과 '일본국 법화 50억엔 차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차입한 20억엔과 이날 30억엔을 포함한 것으로 모두 50억엔을 1년 초과 기간으로 장기 차입하게 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엔화 장기 차입

성공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중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부문에 앞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본계 은행과의 차입 약정으로 외화조달을 다양화 함으로써 앞으로 외화 유동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카드사 보험상품 꺾기 금지

신용카드사도 다른 금융회사처럼 대출을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고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도 25%로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20일 정기 승진에 이어

보험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정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만 '꺾기' 금지 조항은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운영권을 갖는 상황에서 지분 49%를 매각하고 매각 지분 가운데 15%는 공항

관련 자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인천국제공항의 매각 주간사를 선정한 뒤 자산 평가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5870-000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802-189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802-189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9611-2817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6366-6443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5870-000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9611-2817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6366-6443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5870-000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9611-2817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6366-6443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5870-000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9611-2817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6366-6443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5870-000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9611-2817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6366-6443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5870-000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7570-7525

국민시행·원통 대표이사 010-9611-2